

“잘 보여서 꼭 웃는다”

IAAF실사단 오늘 도착...25일까지 현장 점검 대구시, 유치열기 알리기 다양한 이벤트 마련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주사위가 22일 저녁에 던져진다.

최선을 다해 유치전을 펼쳐 온 시는 22일 오후 도착하는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현지 실사단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끝마치고 출발선에 섰다. (관련기사 4.17면)

시는 지난 20일 실사 대상지를 중심으로 실사평가 준비 사항에 대한 최종 리허설을 갖고 마지막 점검을 마무리했다.

21일에는 대구시의회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새마을운동 대구시 중구 지회 회원 200명과 거리 홍보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시민들도 실사단의 방문을 앞두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전망 등을 얘기하며 다소 고조된 분위기다. 헬무트 디젤(독일) 단장을 비롯한 8명의 IAAF 실사단은 22일 오후 8시15분 대구공항을 통해 대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구공항에서 500명이 넘는 대구 시민 환영단이 직접 공항에서 실사단을 맞이하게 된다.

시는 실사단이 숙소인 인터불고 호텔로 향하는 도로에 'DAEGU 2011' 문양이 있는 청사초롱 460개를 밝힐 계획이다. 또 주요 거리에 1천여개의 환경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실사단의 눈길이 닿는 곳에 7천여개의 깃발을 달았다. 시내버스와 택시, 승용차도 'DAEGU 2011'이 새겨진 깃발을 부착하고 대구시의 유치열의를 실사단에게 알리는데 동참키로 했다.

23일 실사단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대구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어린이 5천여명이 꾸러기 육상경기대회를 열고 대구시 초·중·고 육상선수들이 육상 꿈나무 경기를 펼친다. 같은 시간 보조경기장에서는 구·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2011m 이어달리기와 중·고등 육상부의 연습경기 장면이 연출돼 대구의 육상 붐 분위기를 보여준다.

또 스포츠 기념관 주변에서는 전통 연날리기, 고산농악 공연, 육상관련 사진전시회가 열리며 3인조 모터 패러글라이딩팀이 오색 연막과 환영 현수막을 드리우고 실사단을 맞이한다.

유치위원회는 실사 기간동안 1만여명의 대구 시민들이 거리 환영에 참여하고 월드컵 경기장에는 2만여명의 환영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실사가 끝난 이날 오후에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국회특위 위원, 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실사단 환영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대표 2명이 80만명 대회참관 서명부를 유치위원장 등에게 전달하며 실사단에게 대구시민의 대회 유치열의를 보여줄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사단이 대구에 머무는 동안 시민들의 유치열의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실사평가를 준비했다"며 "대규모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사단은 24일 오전 최종보고회 등의 시간을 가진 후 이날 오후 4시35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게 되며 다음달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리는 IAAF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개최 도시를 결정한다.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